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주제나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 책을 읽고 탐구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애들러와 도렌은 이처럼 두 권 이상의 책을 비교하며 읽는 능동적 독서 방식을 통합적 독서라고 불렀다.

애들러와 도렌은 독자의 독서 수준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제1수준은 초급 독서로 책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초적 읽기 단계이며, 제2수준은 점검 독서로 정해진 시간 내에 책을 훑어보거나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읽는 단계이다. 제3수준은 한 권의 책을 시간제한 없이 깊게 정독하는 분석적 독서로 저자가 사용한 핵심 단어 의미 파악하기, 저자의 주장과 근거 찾기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단계이다. 제4수준은 통합적 독서로 여러 책을 읽고 중심 주제를 연관 지어 읽는 단계이다. 이들은 높은 단계의 독서 수준이 이전 단계의 독서 수준을 포함하며, 독서 수준은 이전 수준에 도달해야 다음 수준의 읽기로 넘어갈 수 있는 위계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애들러와 도렌은 통합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책들을 살펴보고 주제와 관련된 도서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통합적 독서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데, 독자는 먼저 탐구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읽으며 책의 유용성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저자들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 핵심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공통된 요소를 담아 '중립적 용어'로 재설정한다. 그다음 탐구 주제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저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답을 탐색하고, 저자들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쟁점들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쟁점별로 저자들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통합적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독자가 중립적 용어로 바꿀 경우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독서는 다양한 관점을 연결해 저자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초급 독서 수준에 도달해야 점검 독서를 할 수 있다.
② 점검 독서는 책을 훑어보거나 필요 부분을 읽는 단계이다.
③ 점검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④ 점검 독서는 분석적 독서와 달리,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을 읽어야 한다.
⑤ 통합적 독서는 분석적 독서와 달리, 두 권 이상의 책을 읽고 비교하는 단계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통합적 독서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선 수준과 다른 점이 읽기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중립적 용어를 설정할 때 단어의 의미가 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다양한 저자들의 관점을 해석하는 데 주목하여, 능동적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④ 독자가 유용한 부분만 찾아 읽는다는 점에서, 저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⑤ 주제에 대한 저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는 방법만 제시하여 공통된 견해가 나타나는 상황은 논하지 않았다.

3.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독서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탐구 주제로 정한 '성공의 기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통합적 독서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 여러 도서를 살펴보며 탐구할 도서 목록을 작성했다. 책을 읽다 보니, ⓑ 저자들은 '성공'을 '경제적 성취', '사회적 인정', '개인의 만족' 등의 개념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을 ⓒ '삶에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인식하는 상태'라고 설정하고,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어 저자들의 견해를 탐색했다. ⓓ 이후 '성공의 기준은 외적 성취인가, 내적 만족인가?', '성공은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쟁점을 정하고, ⓔ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별로 저자들의 해석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① ⓐ: '성공'과 관련된 도서들을 선정하여 통합적 독서를 준비했겠군.
② ⓑ: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을 파악했겠군.
③ ⓒ: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중립적 용어로 다시 설정했겠군.
④ ⓓ: 질문에 대해 저자들의 관점이 부딪치는 부분을 찾아 쟁점으로 규정했겠군.
⑤ ⓔ: 쟁점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과 유사한 저자의 해석을 선정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학에서는 구조를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외적 제약으로 ⓐ 바라보는 입장과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두 입장이 각각 행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제도화된 거대 구조의 강제력을 간과하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구조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구조화 이론에서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며, 인간은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규칙은 개인의 발화를 제한하는 외적 제약이지만,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언어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 표현을 ⓑ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단순히 기존 구조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을 의미하며, 기든스는 이러한 개인의 행위를 ㉠ '성찰적 실천'이라고 불렀다. 그는 성찰적 실천에 의해 사회체계가 유지되거나, 변형되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생산이 되려면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추상적 시스템'은 타인과 직접적 접촉 없이도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적 표상이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화폐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전문가 체계는 의료 체계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기든스는 물물 교환처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던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화폐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시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낯선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 생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맺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추상적 시스템은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개인의 행위는 사회체계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든스의 입장이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제공되고, 변화의 방향성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구조화 이론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성찰적 실천을 통해 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사회체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과학의 발달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로 인해 자연에 대한 통제와 생산성 증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상품 생산은 기후 위기나 방사능 오염과 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도 초래하였다.

울리히 벡은 산업 사회가 초래한 위험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자연재해와 달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벡은 이처럼 사회 운영의 중심축이 '부의 생산'에서 '위험의 관리'로 이동한 상태, 즉 안전과 생존이 사회적 화두가 된 상태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했다.

벡은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능력은 개인의 경제적 여력과 직업, 교육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듯이 위험 또한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됨을 지적하며, 위험사회에서는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을 넘어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벡은 위험사회에서 과학과 전문가의 권위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학이 위험의 생산에 관여하면서도 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학은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독점적 권한을 ⓓ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지식에 기반했던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되며,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위험사회 속에서 안전한 삶을 ⓔ 누리기 위해 기존의 사회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벡은 ㉡ '성찰적 근대성'이라 불렀다. 벡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성은 위험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구조화 이론의 원리를 분석하고, (나)는 위험사회의 해결 방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구조화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나)는 위험사회의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③ (가)는 구조화 이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소개하고, (나)는 위험사회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④ (가)는 구조화 이론의 특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나)는 위험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가)는 구조화 이론이 출현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나)는 위험사회의 다층적 의사 결정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재구성된 구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행위이다.
② ㉠은 ㉡과 달리, 기존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행위이다.
③ ㉠은 기존의 구조를 주체적으로 변용하기 위한, ㉡은 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이다.
④ ㉠은 기존 구조와 재구성된 구조의 유사성을, ㉡은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⑤ ㉠은 구성원을 제약하는 구조의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은 구성원을 위협하는 구조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징적 표상을 통해 사람들은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② 상징적 표상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전문가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행위를 지속한다.
④ 전문가 체계를 통해 사람들은 낯선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⑤ 추상적 시스템은 상징적 표상을 활용하여 전문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7.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벡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사회에서는 위험 관리 능력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②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은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다.
③ 위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전문가 집단이 위험을 분배하는 권한은 강화된다.
④ 위험사회에서는 의사 결정의 참여자가 다양한 행위자에서 단일 주체로 전환된다.
⑤ 위험사회에서는 생산력 증대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위험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개인들은 일상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육류 중심의 식단을 채식으로 전환하며, 과대 포장된 제품에 대해 포장재를 반납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은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공유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만들고, 대형 마트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코너를 신설하게 하는 등 기존의 산업 구조와 소비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

①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을, 기든스는 기존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실천적 역량을 지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보겠군.
② 시민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실천하며 공유하는 모습을, 기든스는 시민들이 전문가 체계의 운용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겠군.
③ 기업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에 반응하여 '친환경적 행동 양식'으로 경영 방법을 변화시킨 것을,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겠군.
④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 시민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벡은 사회 운영의 중심축인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겠군.
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의사 결정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벡은 일상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려는 하위정치의 실천이라고 보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관망(觀望)하는
② ⓑ: 생성(生成)해
③ ⓒ: 발생(發生)하는
④ ⓓ: 상실(喪失)하게
⑤ ⓔ: 향유(享有)하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 면을 경사 없이 수평으로 만들면 빗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차량 주행에 위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도로에는 반드시 배수를 위한 경사가 필요하다. 직선 도로에서는 횡단면 기준으로 도로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중앙이 높은 좌우 대칭의 내리막 경사를 둔다. 배수만을 고려하면 횡단 경사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경사가 너무 크면 운전 중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노면이 젖거나 결빙이 된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는 포장도로의 경우 2% 이내로 설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중앙선 기준 도로 폭 1m당 높이가 2㎝씩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곡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곡선을 따라 주행할 때 차량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경에는 반비례한다. 이러한 원심력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곡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이다. 마찰력이란 접촉한 두 물체가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그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진다. 이때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마찰 계수이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걸린 1톤 차량을 평평한 아스팔트 포장 위에서 끌기 위해서는 약 0.4 ~ 0.8톤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노면의 마찰 계수가 0.4 ~ 0.8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면이 얼음으로 덮인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0.2 ~ 0.3 수준으로 작아져 차량을 훨씬 쉽게 끌 수 있다.

도로의 마찰력이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보다 클 때에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지만 마찰력이 원심력의 크기와 같아질 때부터 차량은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도로를 포장할 때 내부에 작은 빈 공간을 두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한 다공성 포장이나 고무 가루를 넣은 특수 포장재를 사용하면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도로가 결빙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의 마찰 계수를 결빙 시 마찰 계수의 절반 수준인 0.1 ~ 0.16 범위로 가정하는데, 이는 결빙 시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곡선 도로에서 직선 도로와 같은 횡단 경사를 그대로 적용하면 차량이 원심력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곡선 도로는 바깥쪽을 안쪽보다 높게 만드는 ⓑ편경사를 적용한다. 편경사를 주면 원심력의 일부가 상쇄되어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가 줄거나 도로가 얼면 차량이 안쪽으

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편경사는 최대 8% 이내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경사는 횡단 경사와 달리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왕복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직선 도로와 곡선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는 완화 곡선 도로를 둔다. 이를 통해 직선 도로에서 일정 반경을 지닌 곡선 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운전자가 도로의 굽어짐을 조금씩 인지하게 하여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틀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한다. 또 주행의 안전성을 위해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를 완화 곡선 도로 구간에서 서서히 변화시켜 곡선 도로에서의 편경사로 전환한다.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설계 속도와 곡선 도로의 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설계 속도에 비례하고 곡선 도로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설계 속도는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로, 곡선 도로의 반경이나 편경사 등 각종 계산의 기준이 된다. 실제 도로에서는 설계 속도의 약 85% 정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한다.

[A] 한편, 도로에 곡선이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전방의 물체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운전자가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시거'라고 하는데 시거가 확보된 곳에서는 도로 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체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정지 시거라 하는데, 정지 시거는 물체를 인지한 순간부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정지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운전자가 물체를 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제동 반응 시간이라고 하고, 이때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제동 반응 거리라고 한다. 정지 거리는 여기에 브레이크 작동 후 차량이 멈출 때까지 이동한 제동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마다 주행 속도와 제동 반응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 속도를 곱해 제동 반응 거리를 산정하고,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제동 거리를 산정한 후 정지 거리를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설계 속도는 실제 도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며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를 2% 이내로 제한한 것은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도로가 결빙 상태일 경우에는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한 다공성 포장이나 특수 포장재의 효과가 줄어든다.
④ 곡선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커진다.
⑤ 직선 도로에서는 배수를 위해 도로 중앙을 높이고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좌우 대칭의 횡단 경사를 둔다.

11.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크기는 차량의 속도에 반비례하며, ⓑ의 크기는 곡선 도로의 반경에 비례한다.
② ⓐ는 도로 면의 상태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는 곡선 도로에서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일부 상쇄시킨다.
③ ⓐ는 도로 설계 시 마찰력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는 곡선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변경된 후 적용된다.
④ ⓐ는 곡선 도로의 반경이 클수록 작아지고, ⓑ는 마찰력을 줄여 차량이 곡선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한다.
⑤ ⓐ와 ⓑ는 모두 크기가 작아질수록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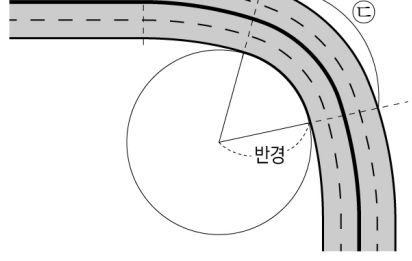
12.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로의 설계 속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할 때의 설계상 정지 거리는 길어진다.
②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달라지더라도 그에 따른 운전자의 제동 반응 거리는 변함없이 동일하다.
③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운전자의 제동 거리는 짧아지지만 실제 정지 거리는 길어진다.
④ 운전자의 제동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그에 따라 실제 정지 거리에서 제동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난다.
⑤ 전방의 물체를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든다면 설계상의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보다 더 짧게 바꿀 수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 도로의 평면도와 설계 기준의 일부를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설계 속도	120km/h
마찰 계수	0.1
횡단 경사	2.0%
편경사	8.0%
차로 수	왕복 4차로

① 왕복 4차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한다면 ㉠ 구간에서 중앙선 기준 도로 양 끝의 높이는 기존보다 더 낮아지겠군.
② 도로의 설계 속도를 시속 80㎞로 바꾸고 곡선 도로의 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 구간의 길이는 기존보다 줄어들겠군.
③ 곡선 도로의 반경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해도 ㉢ 구간에 적용되는 최대 편경사는 더 높일 수 없겠군.
④ ㉢ 구간과 달리, ㉡ 구간은 주행의 안전성을 돕기 위해 도로의 횡단 경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설계가 필요하겠군.
⑤ ㉠~㉢ 구간은 모두 결빙 시 차량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의 마찰 계수를 더 크게 가정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더 쉬워지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인 펀드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이를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이다. 다수의 ETF는 KOSPI 200*과 같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는데, 이때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은 그 지수에 포함된 여러 기업의 주식을 기초 지수의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 모두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ETF는 소액으로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환금성을 지닌다.

ETF 증권의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장이 마감된 후, 하루에 한 번 산출되는 순자산가치가 있다. 순자산가치는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를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값을 총발행 증권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ETF 증권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가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가 함께 제공된다. 한편, ETF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사고팔리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 하는데, 이는 투자자의 매수·매도 수요에 따라 형성되므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와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장중 괴리율은 ETF 증권의 시장 가격에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로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낸다. 괴리율의 절댓값이 크다는 것은 ETF 증권이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가 ETF 증권을 매수·매도할 때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괴리율은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 거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축소된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계약을 ⓐ 맺고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ETF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괴리율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 ETF의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설정이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기초 자산 바스켓*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ETF 증권을 새로 발행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반대로 환매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 자산 바스켓을 다시 지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괴리율이 양수일 때, 설정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음수일 경우에는, 환매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가 확보한 기초 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차익 거래는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을 다시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

ETF는 추구하는 수익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에 따라 ㉠ 패시브형 ETF와 ㉡ 액티브형 ETF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기초 지수와의 상관 계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상관 계수란 ETF의 수익률이 기초 지수의 움직임과 얼마나 유사하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기초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임을 뜻한다. 패시브형 ETF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상관 계수를 0.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는 반면, 액티브형 ETF는 상관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운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별도의 금융 계약을 결합하여 수익 구조를 특수하게 설계한 ETF도 있다. ㉢ 레버리지형 ETF는 기초 지수의 일별 수익률에 2배나 3배 등 일정 배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활용하여 지수 변동폭을 확대해 추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초 지수가 하락할 경우 자산 손실 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따른다. 왜냐하면 당일의 수익률이 반영된 자산 가치, 즉 평가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 다음 날 수익률 계산의 기준으로 ⓑ 삼는 ETF의 특성상, 배율이 확대되어 적용되면 기초 지수가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여 하락 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 지수가 100이고 투자 원금이 10,000원일 때, 기초 지수가 80으로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에서는 원금이 40% 감소하여 6,000원이 된다. 다음 날 기초 지수가 25% 상승하여 다시 100이 되더라도 평가액은 지수 상승 폭의 2배가 반영된 9,000원에 그치게 된다. 또한 ㉣ 커버드콜형 ETF는 증권을 보유하며 증권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는 동시에, 특정 가격에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가 상승 전에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 실현은 제한되지만,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의 위험, 운용 방식, 그리고 유형별 고유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KOSPI 200 : 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우량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
* 기초 자산 바스켓 : ETF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묶음.

1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반적인 펀드는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는 ETF보다 환금성이 높다.
② 상관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ETF의 수익률은 기초 지수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나타난다.
③ 유동성 공급자는 ETF의 설정과 환매의 과정에 참여하며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이 본질 가치에 근접하도록 돕는다.
④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은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주식 1주를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⑤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수요와는 상관없이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산출된다.

15. <보기>는 일정 기간의 날짜별 기초 지수를 기록한 표이다. ㉠~㉣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짜	7/20	7/21	7/22	7/23	7/24	7/27	7/28	…	12/24
기초 지수	100	80	104	107	110	105	100	…	110
기간	[A]			[B]		[C]			

(단, 상품은 각 기간의 첫날에 매수하여 마지막 날에 매도하며, 해당 ETF의 수익률은 제시된 기초 지수의 수치만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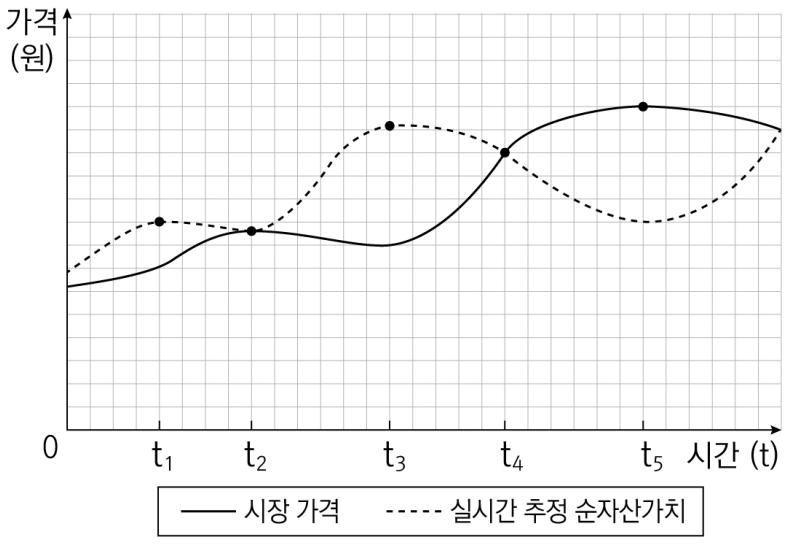
① [A] 기간에 목표 배율이 2배인 ㉢을 선택한 투자자는 지수 상승으로 인해 원금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수익도 실현했겠군.
② [B] 기간에 ㉠을 선택한 투자자는 기초 지수의 상승률과 유사하게 수익을 실현했겠군.
③ 기초 지수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가 [B] 기간에 ㉢을 선택했다면 목표한 배율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군.
④ [C] 기간에 ㉣을 선택한 투자자는 ㉠을 선택한 투자자와 달리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얻었겠군.
⑤ 기초 지수 변동 추이를 예상한 투자자가 [C] 기간에 기초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보다는 ㉡을 선택했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 'A'의 장중 가격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단, 유동성 공급자와 투자자의 매수·매도 이외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① t_1에서 t_2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자산 운용사로부터 기초 자산 바스켓을 지급받기 위해 ETF A를 매수하겠군.
② t_2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은 t_3보다 적겠군.
③ t_3에서 t_4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의 차익 거래로 인해 ETF A의 총발행 증권 수는 증가하겠군.
④ t_4에서 t_5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겠군.
⑤ t_5에서 투자자가 ETF A 증권을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하게 될 가능성은 t_1보다 더 크겠군.

17.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 전쟁 끝에 두 나라는 평화 협정을 맺었다.
   ⓑ : 그 선수는 상대를 성장의 본보기로 삼았다.
② ⓐ : 오랜 기다림 끝에 장미가 봉오리를 맺었다.
   ⓑ : 나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③ ⓐ : 그 연극은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을 맺었다.
   ⓑ : 그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대화 상대로 삼았다.
④ ⓐ : 그는 끈을 여러 겹으로 두르고 매듭을 맺었다.
   ⓑ : 그는 일평생 근검절약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다.
⑤ ⓐ : 그들은 친한 친구 소개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 : 사장은 실력을 검증받은 그를 동업자로 삼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인이 이 통판을 청하여 춘파의 말을 자세히 고했다.

"안동 김 처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통판이 대답하기를,

[A] "김 처사는 이전 시중 완국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무죄하게 외로운 섬에서 죽은 바 되었으니, 청운의 뜻이 없이 농부 어옹과 짝이 되어 세월을 보내니, 또한 지상의 신선이라. 내 비록 얼굴을 본 적이 없으나 그 덕행을 짐작하니 그 아들도 반드시 충효를 모두 갖추었을지라. 속담에 하였으되, '호랑이는 개의 새끼를 아니 낳는다.' 하였으니, 부인은 시비를 보내어 자세히 탐지하라."

하니, 부인이 춘파를 보고 말하기를,

"춘파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반가운지라. 이제 농옥의 혼사를 의논하고자 하여 시비를 시켜 한 번 보고 완전히 정하고자 하니, 춘파는 한 번 걸음을 아끼지 말라."

하고 시비 추월을 불러 말하였다.

"춘파와 같이 가서 공자를 보고 오라."

하고, 춘파를 재촉하니, 춘파가 말하기를,

"이같이 믿음으로 신중히 하시니 바른대로 말씀하오리다. 저와 함께 온 여인은 과연 여승이 아니오라 김 처사 댁 시비 향임이라. **소저의 화용**을 보러 왔사오나, 바른대로 말씀하오면 자세히 뵐 길이 없을 듯하여 잠깐 기망하였사오니 죄송하오이다."

하고, 향임이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부인이 시비로 하여금 붙들어 대청마루에 올리고 위로하여,

"일의 형세가 그러할지라, 무슨 죄를 내리겠는가?"

하고, 즉시 세 사람을 안동으로 보내었다.

각설(却說). 김 처사는 부인과 더불어 향임과 춘파를 보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루는 까치가 창밖에 와 세 번 짖기에 처사 부부가 길흉을 알지 못하여 민망히 여겼는데, 이윽고 향임이 밝은 낯빛으로 들어왔다.

급히 허실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 소저는 곧 천상 선녀라. **인간 세상의 사람 같지** 아니하니 형용하여 말씀하옵기 어렵나이다."

이 통판 댁 시녀가 왔음을 고하니, 부인이 불러 그 댁 안부를

물은 후 다과를 대접하고 선옥을 부르니 선옥이 들어왔다. 추월이 감히 머리를 들어 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잠깐 보니, 온화한 용모와 영리하고 비범한 풍채가 **인간 세상의 사람 같지** 아니하여 우러러보지 못할 정도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김선옥은 이농옥과 혼인 후, 농옥에 대한 오해로 가출한다. 이에 일가친척 형옥이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선옥을 데리고 오자, 다른 가족들과 달리 부인 농옥만이 그가 가짜임을 주장하고 김 처사는 관아에 진정을 올린다.

"삼가 ㉠진정을 올리는 사유는 제가 팔자가 기박하여 늦게야 자식 하나를 두었는데, 저의 나이 칠십이라. 생전 재미를 보자 하고 경주 거하는 이 통판의 여식으로 혼인하여 수년이 되오매, 불초자식이 홀연히 부모를 버리고 간 곳 없더니 삼년 만에 돌아오매, 부모와 친척, 노복이며 이웃이 모두 보고 반겨하오나 오직 며느리만이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여 가문이 장차 끊기게 되옵기로, 사사로이 결단치 못하여 밝은 관청 아래 하소연하오니, 인륜을 밝게 처분하옵시기 천만 바라나이다."

하니 부사가 보시기를 다하고 세 사람을 가까이 오라 하고 물었다.

"부자는 천성지친(天性之親)이니 어찌 천륜을 속이리오? 김 씨는 들으라. 누가 네 아들이며 네 종질이뇨?"

처사가 여쭈었다.

"동편에 서 있는 것은 자식 선옥이오, 서편에 서 있는 것은 종질 형옥이로소이다."

부사가 김 처사를 자세히 보고 선옥을 또 살펴보니 부자가 혹 닮지 아니하나 그 며느리가 다른 말을 함이 무슨 연고 있는가 하여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삼부자는 한편이다. 한편의 말로 판결치 못하리니, 지금 너의 부인과 며느리를 송정(訟庭)*에 들게 하라."

처사가 즉시 집에 기별하여 부인과 며느리로 하여금 송정에 들게 하고, 부사가 관비로 하여금 장 부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저기 섰는 자가 분명 자식인가?"

장 씨 고하였다.

"천륜이 지중하며 어찌 타인을 자식이라 하오며, **갓 나서부터 기른 자식**을 어미가 되어 어찌 모르리까?"

부사가 농옥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제 너의 시부모가 더 분명히 저의 자식이라 하거늘, 네 어찌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니, 비록 부부가 오륜에 들었으나 부자는 오륜의 으뜸이라. 어찌 그 부모의 정리와 같으리오?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시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하거늘, 농옥이 고하였다.

"부부의 정리는 부모의 정리에 지나지 못하려니와,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사가 노하여 말했다.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기른 자식의 얼굴을 어찌 모르고 네 홀로 안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병자**의 말이로다."

농옥이 또 여쭈되,

[B] "병자 같사오면 아무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침식과 행동거지를 어찌 평상시와 같이 하오리까? 분명 부군이 아님은 위에 있는 하늘이 굽어살피시오니, 바라건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은택을 입게 하시어 김 씨의 인륜을 찾게 하시고 신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

하거늘, 부사가 양편의 말을 듣고 진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결하기를,

"이 송사는 진짜 선옥을 보기 전에는 귀신도 결단하지 못할지라. 이 씨가 고한 바와 같으면 진짜 선옥이 아닌가 하며 김 씨 부부가 고한 바를 취하면 분명 선옥인가 하오니, 김 처사는 저 선옥을 다시 장가들게 하여 집안의 법도를 안정시키고 이 씨는 본가에 가 있어 진정한 선옥이 돌아오는 때를 기다림이 마땅하다."

이날 처사 부부와 아들과 조카, 그리고 농옥이 송정에 들어가 부사의 처결을 얻자, 처사는 부인과 선옥으로 더불어 농옥을 내칠 의논을 작정한 후에 친척을 모아 부사가 판단한 문장을 내어 두루 보이고 며느리를 내쫓고 새로운 처를 취할 뜻을 고하였다.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 송정 : 송사를 처리하는 법정.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통판의 부인은 혼사를 결정하기 위해 추월을 시켜 선옥을 보게 한다.
② 김 처사의 부인은 까치가 짖고 간 일을 길조로 여겨 향임을 반갑게 맞이한다.
③ 이 통판의 부인은 춘파의 고백을 듣고 춘파 일행의 입장을 이해하여 죄를 묻지 않는다.
④ 관아에서 돌아온 김 처사는 농옥과 의논하지 않고 친척들에게 선옥의 처를 새로 구할 뜻을 알린다.
⑤ 부사는 삼부자가 한편이라고 생각하여, 김 처사의 부인과 농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아로 불러들인다.

1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 언급된 농옥에 대한 불신이 ㉡을 통해 해소된다.
② ㉠에 언급된 선옥의 가출은 ㉡에서 그 이유가 밝혀진다.
③ ㉠에 언급된 선옥의 정체는 ㉡을 통해 가짜임이 드러난다.
④ ㉠에 언급된 김 처사의 염려에 대해 ㉡에서 해결책이 제시된다.
⑤ ㉠에 언급된 김 처사와 농옥의 입장 차이는 ㉡으로 인해 좁혀진다.

20.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자신의 행동이 평상시와 같음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견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A]는 명령의 형식을 통해, [B]는 부탁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④ [A]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B]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⑤ [A]는 인물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화산중봉기」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과 이별, 그리고 재회 과정을 다양한 화소를 활용하여 드러낸 작품이다. 먼저 남녀 주인공의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속임을 통한 선보기' 화소를 활용하여 결연을 추진하며, 주변 인물을 통해 남녀 주인공의 비범함을 드러낸다. 또한 이별한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는 과정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진가쟁주' 화소가 활용되는데, 주인공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은 인물의 소신 있는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① 향임이 '소저의 화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 여승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속임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살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② 향임이 농옥을, 추월이 선옥을 '인간 세상의 사람 같지' 않다고 평가한 것에서,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 있는 남녀 주인공의 비범함이 주변 인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형옥이 데려온 남자가 '갓 나서부터 기른 자식'이 맞다는 김 처사의 부인과 부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농옥이 대립하는 모습에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④ '홀로 부군이 아'님을 주장하는 농옥을 '병자'로 치부하는 부사의 모습에서,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려 시련을 겪게 만드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시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부사의 말에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냐고 대답하는 농옥의 대처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인물의 소신 있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이라면 ⓐ 형제슈퍼 주인인 그로서도 결코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작년 요맘때 원미산을 샅샅이 뒤졌다구요. 없었어요. 텐트 치고 있던 몇 사람들도 그런 **사내**는 본 적이 없대요. 벌써 어디론가 떠난 거예요."

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 한 잔씩의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으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성님. 우짜다가 그 사람은 산으로 들어갔답니꺼. 밥술이나 묵고 자슥도 둘이나 있다 하던데."

ⓑ 주 씨는 암만해도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그래도 ⓒ 박 씨만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이 원래 서울 무슨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인디 대학 꺼정 나오고 인물도 썩 괜찮은 편이라는 거여. 저기 있는 남궁원보담야 못혔겠지만서두."

박 씨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물론 거기에 보탤 말이야 하루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다. 직장에서 쫓겨난 바람에 그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마누라가 결국 서방 잡아먹은 셈이 되었다는 설도 있었다. 누군가는 월급보다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 빚에 몰려 그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세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내가 알지 못할 큰 죄를 지고 쫓겨 다니는 중이었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원미산에는 임진왜란 때 죽은 병졸 귀신이 있다잖아요. 그 귀신이 해마다 사람 하나씩을 잡아먹는대요. 올해도 저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약수터에서 내려오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틀림없어요. 귀신이라니까."

ⓓ 엄 씨의 발상은 노상 이렇게 엉뚱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도시의 밀폐된 공간과 군중들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적 충동을 느낀 사내는, 도시에서 벗어나 원미산으로 향한다.

[A]

자신이 내는 발자국 소리라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가슴속에 우물이 있다면 그 우물이 가득 차올라서 한 줌의 바람에라도 출렁 물이 넘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이 가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는 **숲을 헤매**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깊은 터널처럼 뚫려 있는 숲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 걷지 않아 시야가 트이고, 작은 키의 잡목들이 제멋대로 자라나고 있는 구릉이 내다보이곤 하였기 때문에 숲을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을 그리며 맴**을 돌 수밖에 없었다. 맴을 돌다가 그는 다시 쥐와 맞부닥쳤다. 아까 쉼터를 차지하고 있던 그 쥐였다. 그와는 열 발자국쯤의 거리를 두고 쥐는 망연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도 쥐의 까만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혼자 떨어져 나와 산을 헤매던 한 마리 쥐의 구부정한 등허리 위로 청색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상한 놈이군. 그가 몸을 돌렸다. 몇 걸음 떼어 놓고 돌아보아도 쥐는 거기에 있었다. 그의 구부정한 등허리에도 어둠이 한 켜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나무둥치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다.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꺼풀 밑의 어둠은 더욱 어지러웠다.

지난밤, 그는 **두 청년**이 텐트를 거두어 내려가 버린 것을 발견했었다. 언제 내려간 것일까.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나마 보지 못한 게 아쉬웠다. 이제 주홍빛이 새어 나오던 텐트도, 서투르긴 하지만 다정했던 기타 소리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어둠에 묻혀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다. 기타 소리가 안 된다면 새어 나오는 **한 가닥의 빛**이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잠들어 있는 건강한 숨소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

더 이상 어두워지기 전에 어딘가 잠자리를 찾아 숲을 빠져나가야 함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나무둥치에 몸이 붙어 버린 것 같았다.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딸아이와 그 애가 가져야 할 피아노가 떠올랐다. **문갑 위**에 놓아두고 나온 그의 **손목시계**도 떠올랐다. 몇 시나 되었을까. 그는 **애써 시간을 짐작해 보**려 하였다. 문자판 위에 길게 흠집이 남아 있는 그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무둥치에 붙어 버린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문갑 위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서, 또다시 밤이 찾아와 버린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는 숲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다.

"결국 그 남자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군요."

술이 다 깨어 버린 얼굴로, 그래서 적잖이 침통한 기색인 엄 씨의 말이었다.

"사나 새끼야 사라졌거나 뒈졌거나 신경 쓸 것도 없지만도 마누라들캉 새끼들은 우째 되었답니까?"

주 씨는 역시 가족들한테 관심이 많은 모양이었다. 행복사진관 엄 씨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애처가지만 우락부락 덤비면서도 식구들한테 잔정이 많기론 주 씨를 따를 수 없었다.

"한동안은 남편에게 ㉠ 소식이 올까 기두리고 또 찾아도 봄시로 그럭저럭 살아가더니 어디론가 떠나 버렸지. 식구들마저 가 버리니께 누구 하나 찾으러도 안 댕기고 흐지부지 잊혀진 일이 돼 버린 거여. 아즉도 산에 있는 건지, 아니믄 다시 만나 사는 건지 또 죽은 건지 알 수도 없구 말여."

아직도 산에 있는 건지, 하면서 박 씨는 원미산을 돌아보았다.

"박 씨 아저씨는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형제슈퍼 주인인 김 반장이 물었다.

"아니. 못 봤지. 말만 들은 거니께."

"그 식구들은요?"

"없다니께. 아니, 그럼 자네는 보았능가?"

박 씨의 되물음에 김 반장이 고개를 흔들었다.

"주 씨 자네는 혹시 얼굴이라도 본 적이 있능가?"

주 씨도 손을 내저었다.

"엄 씨는?"

"저도 못 봤지요. 이야기야 여러 번 들었지만서두 그 사람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던걸요."

"에헤이, 그라모 여태 우리가 무신 ㉡ 이야기들을 했노?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만 안 했나. 하여간에 시간도 많이 됐으이 고마 들어가 잡시더. **자는 기 남는** 기다."

주 씨의 말에 김 반장이 옳소, 를 외치며 낄낄거렸다.

"그려, 들어가서 한숨 눈이나 붙여야 쓰겄다."

박 씨가 에이 이눔의 물것들, 하면서 팔뚝을 탁 쳤다.

"도회지에선 모기 구경 허기가 힘들다는디 저놈의 강 노인 밭 때문에 모기 극성이 엥간혀야지."

"그런 말씀 마소, 성님. 모기도 다 살자고 허는 짓이라요. 살라꼬 애쓰는 놈은 좌우당간 살려야 하는 기라요."

"정말 이대로 나가단 각시 데려와도 굶기기 딱 알맞아요. 장사가 갈수록 이문만 박해지고 나가는 돈만 커지니."

–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

22.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인용 부호 없이 대상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대상과 인물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23.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와 달리, ⓒ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② ⓐ와 ⓓ가 사내의 행방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는 엉뚱한 상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③ ⓑ는 사내가 원미산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에게 이유를 묻고, 이에 ⓒ는 확실한 근거를 들어 대답한다.
④ ⓒ는 사내에 대한 대략적인 신상을 알리고, 이후 ⓑ와 ⓓ에게 사내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⑤ ⓓ는 사내의 가족에게, ⓑ는 사내에게 각각 주목해 대화를 이어 가고, 이와 관련하여 ⓐ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을 기다리는 인물은 ㉡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② ㉠의 부재는 ㉡ 속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③ ㉠을 알기 위한 인물의 노력은 ㉡을 통해 다수에게 인정받는다.
④ ㉠을 알 수 없는 상황은 ㉡에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을 통해 해결된다.
⑤ ㉠이 올 것이라는 확신은 ㉡에 참여한 인물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장면을 교차 서술하여 개인이 처한 고립의 문제가 피상적으로 소비되는 세태를 보여 준다. 도시에서 벗어나 사회와 단절하고자 한 사내는 원미산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오히려 타인의 존재를 갈망하며 관계의 부재로 인한 내면적 고독을 느끼게 된다. 반면 동네 사람들은 '사내'의 행방을 두고 여러 추측을 하지만, 타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곧바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① '사내'와 관련된 소문을 둘러싸고 동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사내가 '숲을 헤매'는 장면을 대비하여 교차 서술하고 있군.
② 숲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원을 그리며 맴'도는 사내의 모습에서, 도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내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③ '두 청년'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한 가닥의 빛'이라도 곁에 두기를 원하는 사내의 모습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타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숲에 홀로 남아 '문갑 위' '손목시계'를 떠올리며 '애써 시간을 짐작해 보'는 사내의 모습에서, 관계의 부재로 인한 내면적 고독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사내의 행방에 대한 대화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평하며 '자는 기 남는'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타인의 삶이 피상적으로 소비되는 세태를 엿볼 수 있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찌하여 금세(今世) 사람 **과거에 병이 깊**어
경서를 모르고서 의의(疑義)*를 먼저 짓고
역대사(歷代史) 못 알아도 시부를 능히 짓네
경세책(經世策) 사대표(事大表)를 제멋대로 그려 내고
침 뱉어 읽고 나서 과거를 기다리네
팔월에 과장 열면 이월부터 분주하여
집안사람 굶을망정 선접량(先接粮)* 모아 내고
힘 쓰고 말 잘하는 저 소년 뽑아내어
사립문 밖 좋은 집을 다투어 사들여
예닐곱 달 객지 묵고 무수 전장(戰場) 겪은 후에
과거 보는 무리 다 모여서 내일이 과거일이면
아침밥 일찍 먹고 사립문에 붙어 서서
도포 창의 벗어 놓고 허리에 끈을 띠고
등(燈)대로 기(旗)를 삼아 문을 열라 고함하니
ⓐ 금란관(禁亂官)* 이 아이는 나라 법 손에 쥐고
무엇이 겁이 나서 낯 못 되어 문을 여니
우우우 하는 소리 선비 입에 난단 말가
그중의 **약한 선비 엎어지면** 하릴없네
짓밟고 가는 사람 측은심 전혀 없다
울타리 곁에 앉기 사람마다 다투오니
ⓑ 친척 사돈 모르거든 붕우장유 어이 알리
무례하고 못된 말 차마 어이 찢어진 의관 끝이 없네
하루 밤낮 전쟁하듯 겨우 하여 정했구나
과거 글제 못 걸려도 명지를 풀어내어
아랫부분 팔구행의 글귀를 메워 놓고
ⓒ 과제 먼저 보려 하고 좌우에 둘러서니
과제 거는 저 군사야 얼핏 펴고 내리거라
기와 가루 돌 조각이 올라가면 죽으리라
해제를 못 보아도 첫 글귀를 지어 쓰니
동(東) 물어 서(西) 봉답은 오히려 으슥하외다
묻는 말 내 알겠냐 글제 보니 의의(疑義)이라
경제책(經濟策)* 아득하니 설폐구폐(設弊求弊)* 무엇인고
글자가 빠지거니 문리(文理)야 되나마나
일찍이나 **바치**오면 이 과거 못하올까
적게나마 할 일 알아 문의(文義)를 살피다가
붓 잡고 돌아보니 **바닥장(張)*이 되**었구나
그르쳐 들이치고 그날에 백 리 가네
제 집의 돌아와서 부형에게 반면(反面)하면
첫말의 묻는 말씀 **천지축(天地軸)* 바쳤느냐**
그랬다 하다 하면 **대방주(待榜酒)* 바삐 빚**고
아무리 잘 지어도 늦었으니 거짓이라

– 김약련, 「과폐탄」 –

* 의의 : 경서의 구절을 해석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
* 선접량 : 과거를 볼 때 남보다 먼저 과장에 들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은 재물.
* 금란관 : 과거를 보는 과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둔 벼슬.
* 경제책 :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대책.
* 설폐구폐 : 정책이나 제도의 폐단과 그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
* 바닥장 : 마지막으로 글을 지어서 바침.
* 천지축 : 과거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100장씩 묶어 첫 번째는 천축, 두 번째는 지축이라 함.
* 대방주 : 과거 시험 등에서 합격자 명단(榜)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며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술.

(나)

공자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성인이면서 오히려 노자에게 예를 물었고, 담자에게 관직에 대해 물었으며, 사양에게 거문고를 배웠다. ⓓ 안자는 현인이라 학식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학식이 적은 이에게 물었고,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었으니, 배우기를 좋아하여 일정한 스승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

지금 사람들은 **서사(書史)를 약간 섭렵하**면 곧 함부로 **잘난 체하**여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생각하고,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면 세상에서 빼어난 학자로 여기고, 어려운 글자를 기억해 내면 남보다 뛰어난 견해인 양 여기고, 우연히 세상에서 오독하던 글자의 독음이라도 깨달으면 그들의 무식함을 비웃지만 자신도 오독하는 것이 무수한 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궁벽한 시구절이라도 찾게 되면 남들의 고루함을 조롱하지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알지 못한다. 혹자는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얼버무려 자취를 가리고, 혹자는 식견이 어수룩한 자들에게 자랑하여 과장을 일삼아 명성을 훔치는데, ⓔ 이러한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A] 전에 『운부군옥』을 보니 "촉(蜀) 땅에 납어(鮥魚)가 있는데 나무를 잘 오르고 아이 울음소리를 낸다. 맹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였고, 명나라 문인의 『오잡조』에도 "지금 영남에 예어(鯢魚)가 있는데 발이 네 개여서 늘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점어(鮎魚)도 대나무 가지에 오를 수 있으며 입으로 댓잎을 문다."라고 하여 마치 맹자가 보고 들은 적이 없어 잘못 말한 것을 저들이 홀로 박식하여 밝혀낸 것처럼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장 가소롭다. 설령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가 있다 한들 특이한 물고기에 불과하니, 어찌 이것 때문에 연목구어(緣木求魚)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비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물고기가 물에 살고 나무에 살지 못하는 것은 **상리(常理)**이며,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는 바로 **무리(無理)한 중에 간혹 있는 경우**이다. 맹자가 비록 이런 물고기를 알았더라도 비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것을 알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의아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를 근거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말이 되겠는가. 옛날에 **화서(火鼠)와 빙잠(氷蠶)***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또한 화서와 빙잠을 알지 못한다고 희롱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관규여측(管窺蠡測)*의 소견으로 함부로 타인을 논평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하니, 그 폐해는 결국 반드시 연석(燕石)을 보배로 여기며 화씨(和氏)의 박옥(璞玉)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산계(山鷄)를 귀히 여겨 봉황이 상서롭지 않다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식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너무나 애석하고 크게 탄식하지 않겠는가.

– 윤기, 「한거필담」 –

* 화서와 빙잠 : 불에서 사는 쥐와 얼음에서 기르는 누에를 의미하는 말로, 전설상의 동물.
* 관규여측 :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림.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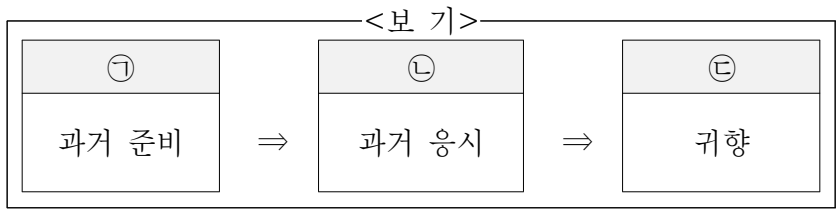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② 성현의 행적을 나열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는 응시자들의 성화를 못 이긴 관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문을 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는 친척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 응시하기 힘든 선비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는 과제를 먼저 보고 답지를 빨리 작성하려는 응시자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현인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⑤ ⓔ는 그릇된 자세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28.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에서 선비가 '집안사람 굶을망정 선접량'을 모으는 이유는 '과거에 병이 깊'기 때문이겠군.
② ㉠에서 선비가 '아침밥 일찍 먹고 사립문에 붙어 서' 있는 이유는 ㉡에서 '울타리 곁'과 같은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겠군.
③ ㉡에서 글제를 본 선비가 '묻는 말 내 알겠냐'라고 한 이유는 ㉠에서 '경서를 모르고서 의의를' 짓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겠군.
④ ㉢에서 부형이 '천지축 바쳤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에서 선비가 답지를 '일찍' '바치'었기를 바랐기 때문이겠군.
⑤ ㉢에서 집안사람들이 '대방주 바삐 빚'는 이유는 ㉡에서 선비가 '바닥장이 되'게 답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군.

29.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자가 성인인 이유는 예와 음악을 배웠기 때문이다.
②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남에게 배우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
③ 어려운 글자를 잘 기억해 낼수록 뛰어난 견해를 지닌 사람이다.
④ 빼어난 학자로 인정받기 위해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이해하기 어려운 시구를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힘써야 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검은 백조(The Black Swan)'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되던 용어였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1697년 호주 대륙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한 후부터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깨지고 말았다. 이후 '검은 백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의 문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연목구어'는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말이겠군.
② '납어'와 '점어'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은 '연목구어'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의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했겠군.
③ '납어'와 '점어'가 발견된 후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제는 더 이상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겠군.
④ '납어'와 '점어'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없겠군.
⑤ '납어'와 '점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는 오류가 없겠군.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혀, 진정한 앎을 추구하는 자세와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우게 된다. (가)는 올바른 태도로 학문하지 않고 급제만을 목표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지엽적 태도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현학적 태도로 학문에 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① (가)에서 '약한 선비 엎어지면' '짓밟고 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겠군.
② (가)에서 '경제책 아득하니 설폐구폐 무엇인고'라고 하는 이유는 선비의 학문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③ (나)에서 '화서와 빙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는 말을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앎을 추구하는 자세라 할 수 있겠군.
④ (나)에서 '무리한 중에 간혹 있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상리'에 해당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지엽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겠군.
⑤ (가)에서 '역대사 못 알아도 시부를 능히 짓'는 사람은 급제만을 목표로, (나)에서 '서사를 약간 섭렵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현학적 태도로 학문에 임하는 사람이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딜 가나,
나는 원효로행 버스를 기다린다.
어디서나 나는
원효로행 버스를 타고 / **돌아**온다.
릴케의 시구를 빌리면,
깊은 밤 /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누리 안에서
고독한 공간으로 / 혼자 떨어져 가는
그 땅덩이에서
나는 /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A]
하루 종일 거리를 서성거렸고
때로는 / 사람을 방문하고
외로운 친구와 더불어 / 잔을 나누고
밤이 되면 / 어디서나 나는
원효로행 버스를 기다린다.
이 갸륵하고 측은한 **회귀심**.
원효로에는
종점 가까이 / **가족이 있**다.
서로 등을 붙이고 [B]
하룻밤을 지내는 측은한 화목들.
어둑한 버스 안에서 / 나는 늘 마음이 가라앉았다.
릴케의 시구를 빌리면,
이처럼 떨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받아 주시는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 박목월, 「회귀심」 –

(나)

분수는 홀로의 분수로 허공에 [C]
사직(社稷)을 내다 걸지만
말로 지은 신전인 듯 누란의 기둥 끝없이 허물어져
변경 가장자리까지 사막의 모래 출렁거린다
일렁이는 빛살의 파문 둥글게 말아 물줄기 사이로 [D]
꾸려 넣는 무지개 생(生)이
물이 꿈꾸는 또 다른 물일까
나는 제 분수도 모르면서 **평일 오후 내내**
분수대 옆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아
공원의 분수가 어떻게 **주렴을 펼**치는가
눈앞의 호사 **끝없이 거둬들이는**
저 **분수대의 도로(徒勞)*** 물끄러미 바라본다, **푼수!**
햇빛 속으로 내다 말리는 건 하릴없는 시간일까
막막한 **쳇바퀴 살림** 저도 지겨운지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 하나
신문지로 얼굴 가리고 건너편 벤치 위에 길게 널브러진다 [E]
그래도 그가 풋잠에 섞는 건 오색 꿈결일까
그늘 벗은 저녁 햇살이 그쪽으로만
환한 무지개 자꾸 지펴 보내고 있다

– 김명인, 「분수」 –

* 도로 : 아무런 보람이 없는 수고.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3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 '호구책을 마련하'려 '하루 종일' '서성거'리는 것에서 생계를 위해 애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 [B] : '서로 등을 붙이고' '지내는' 가족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에서 가족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C] : 분수가 '허공에 / 사직을 내다' 건다고 표현한 것에서 공중으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의 모습이 드러난다.
④ [D] : '무지개 생'을 '물이 꿈꾸는 또 다른' 삶으로 표현한 것에서 꿈을 꾸는 주체가 분수임이 드러난다.
⑤ [E] : '저녁 햇살'이 비치는 '벤치 위에' '널브러'져 '풋잠'을 자는 것에서 화자가 동경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반복의 양상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과 그 삶을 감싸안아 주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나)는 공원에서 마주한 분수와 분수를 바라보는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① (가)에서 화자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나)에서 분수가 '주렴을 펼'쳤다가 '끝없이 거둬들이는' 것에서 화자가 발견한 반복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에서 화자는 '어디서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자신의 '회귀심'에 주목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자신이 갸륵하고 측은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③ (가)에서 화자는 '어둑한 버스 안에서'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을 느끼는 것을 통해 고단한 하루를 마친 자신을 포용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④ (나)에서 화자는 '분수대의 도로'를 '평일 오후 내내' 바라보는 자신을 '푼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⑤ (나)에서 화자는 '쳇바퀴 살림'으로 인해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에 주목해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 지겨운 삶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음 탈락과 반모음 첨가,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연달아 이어질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모음 탈락은 용언 어간 끝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거나, 어간 끝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반모음 첨가는 '되 + 어 → 되어[되여]'처럼, 'ㅣ, ㅚ, ㅟ'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으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반모음화는 '단모음 + 단모음'의 결합이 '반모음 + 단모음'의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단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반모음화는 '보이 + 어 → 보여[보여]'처럼 어간 끝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j 반모음화와, '보 + 아 → 봐[봐:]'처럼 어간 끝 'ㅗ, ㅜ'가 반모음 'w'로 바뀌는 w 반모음화가 있다.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음절 수가 줄게 된다. 이때, 용언 어간이 1음절일 경우에는 장음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보상적 장음화라 한다. 반모음화는 표기에도 반영되고,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된다. 한편, '지 + 어 → 져[저]'의 경우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후에 반모음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ㅈ, ㅊ, ㅉ'과 같은 경구개음과 반모음 'j'의 조음 위치가 비슷하여,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j'가 올 수 없다는 음운 결합의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A]

15세기에도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반모음화가 일어났다. 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표기를 통해 발음과 음운 현상을 추론할 수 있는데, '쑤미 + 어 → 쑤며'를 통해 j 반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어'뿐만 아니라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j 반모음화가 나타났다. 또한 15세기 국어에서 'ㅐ, ㅔ, ㅚ, ㅟ'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모음 뒤에 반모음 'j'가 결합한 하향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ㅣ'가 다른 모음 뒤에 오는 경우에도 j 반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저 + ㅣ → 제'는 대명사 '저' 뒤에 오는 주격 조사 'ㅣ'가 반모음 'j'로 바뀐 경우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도 반모음화가 나타났다. 한편, w 반모음화는 '오 + 앗ᄂᆞᆫ → 왓ᄂᆞᆫ'처럼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일어났다.

3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 + 아 → 가[가]'는 동일한 모음이 연달아 이어질 경우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② '아니'에 '오'가 결합한 '아니오'를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을 회피하기 위해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③ '피'에 '어'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어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④ '비 + 어 → 벼[벼:]'는 '살피 + 어 → 살펴[살펴]'와 달리 보상적 장음화가 반영된 것이다.
⑤ '가지'에 '어'가 결합한 '가져'를 [가저]로 발음하는 것은 모음과 모음 사이의 결합 제약으로 인해 반모음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자 료>

15세기 국어 자료	현대어 풀이
呪術(주술)을 ⓐ <u>외와</u>(외오- + -아)	주술을 외워
法(법) ⓑ <u>ᄀᆞᄅᆞ쵸미</u>(ᄀᆞᄅᆞ치- + -옴 + 이)	법을 가르침이
다ᄉᆞ리던 ⓒ <u>배</u>(바 + ㅣ)라	다스리던 바이다
翻生(번생)은 ⓓ <u>고텨</u>(고티- + -어)	번생은 고쳐

① ⓐ를 보니,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w 반모음화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일어났군.
② ⓑ를 보니,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오'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j 반모음화가 일어났군.
③ ⓒ를 보니,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도 반모음화가 일어났군.
④ ⓒ를 보니,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모음 뒤의 'ㅣ'가 반모음으로 바뀌어 하향 이중 모음을 형성하였군.
⑤ ⓓ를 보니, 15세기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ㅣ'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반모음화가 일어났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윤수, 설아, 준호가 축제 무대를 점검하는 상황]

윤수 : 설아야, 2번 조명만 점등이 안 되고 있어. ㉠ <u>여기</u> 좀 와 봐.
설아 : 시작할 때부터 연결이 불안하더니 결국 조명이 고장났나 봐. 준호야, ㉡ <u>거기</u>에 혹시 예비 조명이 있니? 있다면 좀 가져다줄래?
준호 : ㉢ <u>여기</u>엔 아무것도 없어. 빈 상자뿐이야. ㉣ <u>그건</u> 작년에 고장나서 폐기했대.
윤수 : 그럼 1번과 3번 조명 두 개뿐인데 ㉤ <u>이것들</u>로 무대를 모두 비출 수 있을까?
준호 : 두 조명 사이의 간격을 더 넓게 하면 되지 않을까? ㉥ <u>저번</u>에도 조명 두 개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
설아 : 어쩔 수 없지. ㉦ <u>이번</u>에도 그렇게 하자.

① ㉠과 ㉢이 가리키는 위치는 서로 다르다.
② ㉡과 ㉢은 모두 지시하는 장소에 화자가 위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③ ㉣은 ㉡과 달리, 이미 언급된 대상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④ ㉣은 ㉤과 달리, 대화 상황에 부재하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⑤ ㉥은 ㉦과 달리,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본용언,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에는 본용언, 보조 용언으로 둘 다 쓰이는 것이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품사는 대체로 활용 양상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데,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과 결합할 수 있고, '-고 있다'와도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 이때 보조 용언의 품사는 본용언의 품사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자 료>

㉠ 그는 노래를 못하지 않았다.
㉡ 음식 솜씨가 예전보다 못하지 않다.
㉢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않고 떠났다.
㉣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 그가 한 행동은 옳지 못했다.

① ㉠의 '못하다'와 ㉣의 '못하다'를 보니, '못하다'는 본용언뿐만 아니라 보조 용언으로도 쓰이고 있군.
② ㉡의 '않다'는 ㉠의 '않다'와 달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조 형용사겠군.
③ ㉡의 '않다'는 ㉢의 '않다'와 달리,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 용언이겠군.
④ ㉢의 '않다'는 ㉡의 '못하다'와 달리,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겠군.
⑤ ㉣의 '못하다'와 ㉤의 '못하다'는 모두, 본용언의 품사와 다르다는 점에서 '못하다'의 품사는 고정되어 쓰이고 있군.

39.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조건]
◦ 안은문장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셋일 것.
◦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일 것.
◦ 안긴절의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 나타날 것.

① 나는 다리가 아프신 할아버지께 안부를 여쭈어보았다.
② 철수는 수업이 없으신 선생님께 쉬는 시간에 찾아갔다.
③ 나는 고향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다.
④ 정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친척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
⑤ 나는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만든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키워드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대신 제철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키워드 '제철코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철코어가 무슨 뜻인가요?



전문가 : 제철코어는 '제철'이라는 단어에 핵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 '코어'를 합친 말로 특정 계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즐기는 흐름을 말합니다. 제철 음식을 찾아 먹는 일이 대표적인 제철코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 제철을 챙기는 일은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문화였는데 이제 젊은 세대에게도 유행하고 있다고요?

전문가 : 그렇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철 음식 검색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 젊은 세대가 제철 음식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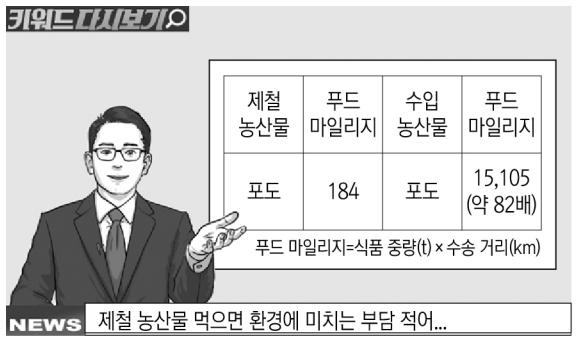
전문가 : 네, 기후 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계절의 지속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봄, 가을,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져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졌는데요, 길어진 여름도 폭염으로 인해 제철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철의 희소성이 높아진 만큼 제철 음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지요.

진행자 : 제철 음식을 먹으며 계절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문가 : 농식품 정보 누리집에 접속하면 월별 제철 달력이 게시되어 있어 제철 농산물과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참고해 제철 농산물을 챙겨 먹을 수 있고, 다음 달 달력을 내려받아 제철 식재료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철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 :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 제철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 원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거리가 짧아 푸드 마일리지가 낮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 중량에 수송 거리를 곱한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적은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제철 농산물을 먹으면 계절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 최근에는 제철을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졌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 '제철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철 챌린지란 그 계절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기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대표적인 제철 챌린지를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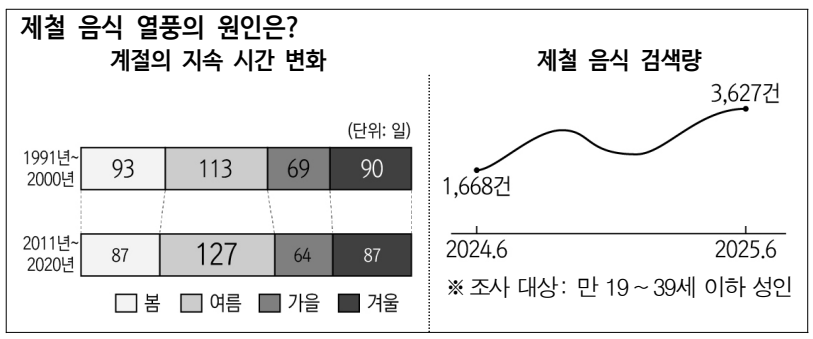
전문가 : 대표적인 예로 특정 계절에만 열리는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여름철 축제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나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린 체험형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농산물 수확 체험, 물놀이 체험, 수중 생태 탐방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 제철 챌린지를 계기로 지역 축제를 찾는 사람이 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철코어의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 네, 제철코어는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담은 줄이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제철코어가 주목받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 저도 이번 여름부터 제철 챌린지에 참여해야겠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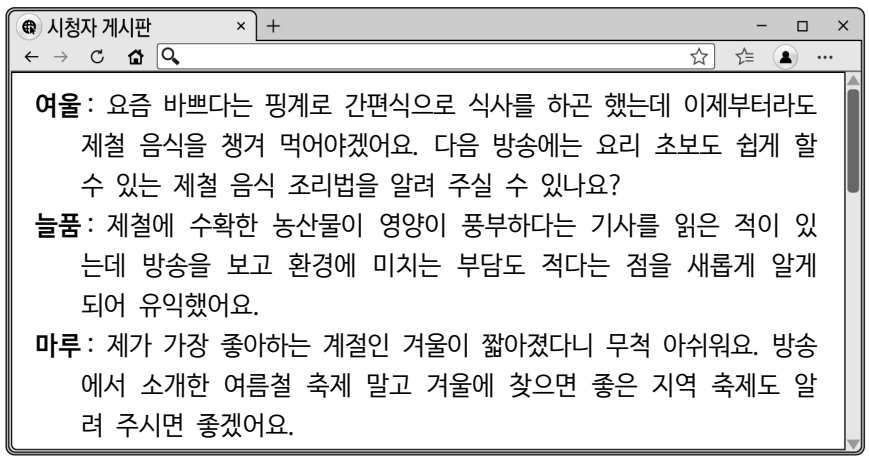
(나)



40. (가)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방송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① 화면에 도표를 삽입하여 전문가가 말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② 방송의 첫머리에 전문가가 중심 화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③ 방송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자가 방송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④ 방송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발화에서 언급된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다.
⑤ 방송을 시작하는 화면 중앙에 방송 소재와 관련 있는 이미지를 방송에서 다룰 내용과 함께 제시한다.

41.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울'은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② '늘품'은 방송에서 다루는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마루'는 방송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④ '여울'과 '마루'는 모두,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⑤ '늘품'과 '마루'는 모두,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을 추천하고 있다.

42. 학생이 (가)에서 확인한 정보를 (나)에 제시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계절의 지속 시간이 달라졌다는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수치의 증감에 따라 글자 크기와 계절별 막대 길이를 달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제철 음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③ 다음 달 제철 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기 위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④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제철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달력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여름철 지역 축제에 관한 정보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축제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행사 일정을 포함한 문구를 함께 활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도'를 사용하여, 제철을 챙기는 문화를 즐기는 세대가 다양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만큼'을 사용하여, 제철의 희소성이 높아진 것이 제철 음식을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어떤'을 사용하여, 제철 음식 이외에 제철을 즐기는 다른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④ ⓓ : '에'를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철 챌린지의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 : '부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제철 챌린지에 참여하려는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44～45] (가)는 학교 마스코트 공모전 홍보를 위한 학생회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고, (나)는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홍보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혜 : 회의 시간인데 입장 안 한 친구가 있네.

채팅	수연 님이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귓속말 (1:1채팅)	수연→지혜	늦어서 미안해. 회의 시간을 착각했어.
	지혜→수연	괜찮아. 아직 시작 안 했어.

지혜 : 그럼 이제 올해의 마스코트 공모전 운영을 위한 회의를 시작할게. 수호야, 이제 녹화 시작해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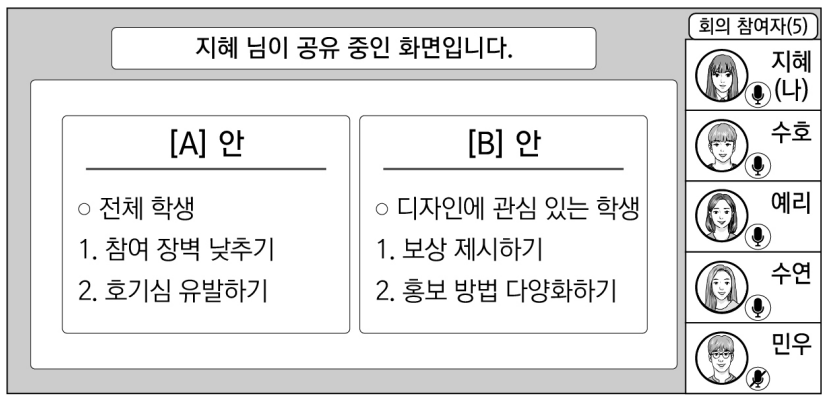
수호 : 응 그래. 녹화한 영상은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회 임원들에게 보내 주려고 해. 다들 녹화에 동의하지?

지혜, 예리, 수연 : 응, 동의해.

채팅	민우	지금 주변 소음이 너무 커서 마이크를 켜면 회의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음소거를 하고 채팅으로 참여할게. 녹화하는 거 동의해.

채팅	수호 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혜 : 내가 두 종류의 생성형 인공 지능이 추천한 공모전 홍보 전략을 미리 조사해서 정리해 봤어. 화면에 공유해 줄게.



지혜 : 이 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선택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수연 : 난 참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공모전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수호 :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A] 안에서 추천한 참여 장벽 낮추기 전략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코트 제작 시 인공 지능 사용도 가능하다고 알리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리 :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B] 안의 보상 제시 전략도 함께 활용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거야.

수연 : 공모전에 참가만 해도 기념품을 준다고 홍보하면 어때?

채팅	민우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작년 마스코트를 예시로 보여 주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리 : 맞아. 그럼 작년 마스코트가 사이 좋은 ○○고 친구들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려 주자.

지혜 : 그래 좋아.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생의 평가만 심사에 반영할지, 선생님의 평가도 함께 반영할지를 결정해서 알려 달라고 하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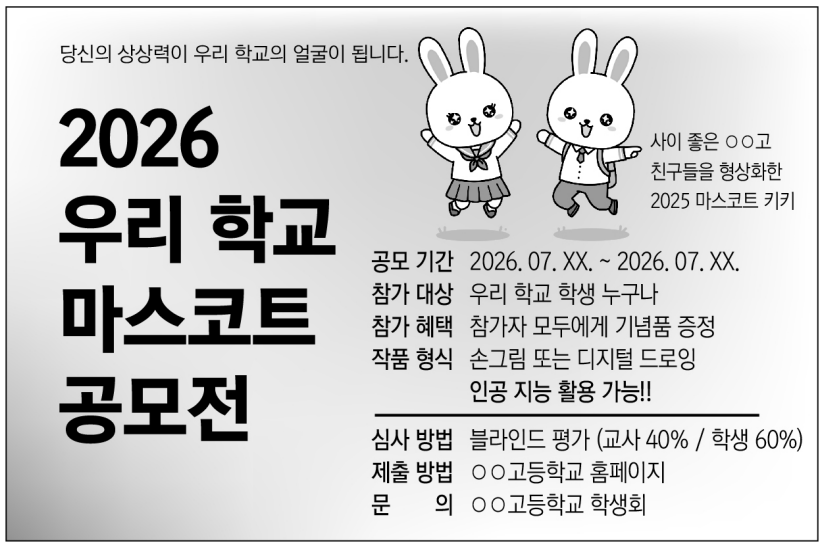
채팅	민우	이건 투표로 결정하자. 이 채팅에 '학생의 평가만 반영하자'는 👍를, '선생님의 평가도 반영하자'는 ♡를 올려 줘. 👍1 ♡4

수호 : 선생님의 평가를 심사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훨씬 많네. 그런데 참가자들에게 심사 방법도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 공모전은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

지혜 : 동의해. 공정성을 위해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심사한다는 점을 알리자. 그럼 여기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홍보 포스터를 만들자.

수호, 예리, 수연 : 좋아. 그렇게 하자.

(나)



44. (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수연은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회의에 늦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 민우는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 진행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③ 수호는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회의 영상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④ 지혜는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논의할 내용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⑤ 회의 참여자들은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45.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참가 대상에 관한 수연의 발화를 반영하여, 참가 대상을 학교 학생 전체로 제시했다.
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의 발화를 반영하여, 평가 주체의 심사 반영 비율을 공개했다.
③ 보상 제시에 관한 예리와 수연의 대화를 반영하여,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참가 혜택을 제시했다.
④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수호의 발화를 반영하여, 인공 지능을 활용해도 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⑤ 아이디어 생성에 관한 민우와 예리의 대화를 반영하여, 작년 마스코트의 이미지를 의미와 함께 제시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